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19. 01. 22.(화) 17:00 (총 5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수도권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예보관	정종운 강신증	전화번호 070-7850-8220 070-7850-8240

이번 겨울 눈이 적게 오는 원인과 향후 전망

- 동아시아 부근 상층 공기의 강한 동서 흐름이 지속
※ 북쪽 한기 남하 저지 → 지상 저기압 북편 → 해상 눈구름대 발달 억제
- 이번 겨울, 서울 적설 일수 2일, 과거 30년 평균 대비 4.2일 적어
※ 서울 누적 신적설, 과거 30년 대비 15% 수준
- 1월 말까지 수도권 눈 가능성 적어



[최근 우리나라 부근 기압계 모식도]

【 최근 강수(눈) 현황과 원인 】

□ (현황) 이번 겨울(2018.12.1.~2019.1.21.) 수도권 강수현황을 살펴보면 누적강수량과 눈이 내린 날은 최근 30년(1989~2018년)에 비해 대체로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

○ 특히, 서울은 같은 기간의 누적강수량이 16.4mm 로 최근 30년(35.5mm)의 약 46% 이며, 눈이 0.1cm 이상 내린 날은 2일로 최근 30년(6.2일)에 비해 4.2일 적게(약 32% 수준) 나타났습니다.

□ (원인) 최근 수도권에 눈이 내리는 날이 적은 원인은 동아시아 부근의 상층(200~300hPa) 공기의 흐름이 평년에 비해 동서 방향으로 강했습니다. 이로 인해,

○ 상층 기압골이 한반도 부근으로 크게 남하하지 못하고 북편하여 통과하였기 때문에 지상저기압을 발달시키지 못하면서 눈이 자주 내리지 않았고,

○ 상층 기압골의 북편으로 인해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많이 내려오지 못하였습니다.

따라서 지상 부근의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확장하지 못해, 찬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 부근의 공기가 만나면서(해기차) 생성되는 눈구름대 발생 횟수가 적어서 눈이 내린 날이 적었습니다.

【 향후 강수(눈) 전망 】

- 1월 말까지도 위와 같은 기압계가 이어지면서 눈이 내리는 날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-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에서 성질이 변한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.

【 가뭄 현황 및 건조 전망 】

- (가뭄)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
- 3월까지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가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- (건조) 한편, 1월 말까지 특별한 눈/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, 건조한 대기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, 산불과 같은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- 붙임 1. 과거 30년 평균(1989~2018) 및 이번 겨울 적설(0.1cm) 일수와 누적 강수량 현황(서울, 인천, 수원)
- 2. 0.1cm 이상 적설 일수 및 누적강수량 그래프(서울, 인천, 수원)

붙임 1

과거 30년 평균(1989~2018) 및 이번 겨울 적설(0.1cm) 일수와
누적 강수량 현황(서울, 인천, 수원)

※ 기간: 12.1.~1.21.

지점	30년 평균 적설일수 (0.1cm이 상)	이번겨울 적설일수 (0.1cm이 상)	30년 평균 강수량 (mm)	이번겨울 강수량 (mm)	강수량 평년대비 (%)	30년 평균 신적설 합계 (cm)	이번겨울 신적설 합계 (cm)	신적설 평년대비 (%)
서울	6.2	2	35.5	16.4	46.2	14.1	2.1	14.9
인천	6.2	3	33.9	17.3	51.0	12.9	5.5	42.6
수원	6.5	3	39.7	24.2	61.0	15.4	5.0	32.5

붙임 2 0.1cm 이상 적설 일수 및 누적강수량 그래프(서울, 인천, 수원)

